알마비바 2015.

Top 10 Wines of 2017

2017년 출시한 와인 중 1등부터 10등까지 줄을 세웠다.
제임스 서클링과 그의 시음단이 선정한 최고의 와인. 놓치면 후회할, 짜릿한 감동 속으로.

에디터 이재연(jyeon@noblesse.com) 글 제임스 서클링(James Suckling)

2017년 한 해에만 필자, 그리고 함께 팀을 이룬 최고의 와인 시음단은 1만7000종에 가까운 와인을 맛보았다. 주요 와인 생산국을 모두 방문한 결과 우리는 2017년 최고의 와인 10종을 아래와 같이 선정했다.

필자를 포함해 스튜어트 피곳과 닉 스톡, 그리고 필자의 아들 잭으로 구성된 제임스서클링닷컴 시음단은 거의 모든 주요 생산국 와인을 테이스팅했고, 대부분의 시음회는 해당 와인의 생산지에서 이루어졌다. 현장에서 진행하는 시음회는 병에 든 액체 이상의 것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우리는 토스카나, 바로사밸리, 리오하, 나파밸리, 모젤, 바하우, 그 외 수십 개 산지에서 작년에 출시한 와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느끼는 기회를 누렸다. 와인업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포도원을 거닐며 땅의 냄새를 맡았다.

잦은 비행으로 마일리지를 쌓기 위한 출장은 정녕 아니었다! 2017년에 그토록 많은 지역을 돌아다닌 이유는 제임스서클링닷컴에 관련된 모든 이가 현재 세상에 나와 있는 최고의 와인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기 때문이었고, 우리가 직접 그 와인을 맛보고 기록하고 싶었다. 우리는 와인을 사랑한다. 그것이 핵심이다.

와인 비평가로 36년을 보냈지만 작년은 대단히 흥미진진한 한 해였다. 경이로운 와인의 홍수 속에서 수없이 멋진 경험을 했다. 우리는 한 팀으로서, 또 가족으로서 바로 여러분, 독자를 위해 그 모든 경험을 공유했다. 2017년 최고 와인 10종의 목록을 작성하는 일은 그래서 더욱 어려웠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와인 하나를 선정했다. 100점을 기록한 칠레산 알마비바 푸엔테 알토 2015(Almaviva Puente Alto 2015)는 강렬함과 짜임새, 균형미를 겸비한 훌륭한 와인의 전형이다. 과도하게 익은 끈끈한 느낌의 와인에서 벗어나 에너지와 세련미를 갖춘 신고전주의 와인을 추구하는 경향을 확실히 보여준다. 또한 남아메리카, 특히 칠레가 어떻게 세계 최고급 와인과 경쟁할 수 있는 빼어난 와인을 생산하는 주요 산지가 되었는지 조명하는 와인이다. 우리가 뽑은 10종의 최고 와인에 속하는 다른 2종의 칠레산 와인은 세냐 바예 데 아콩카과 2015(Seña Valle de Aconcagua 2015)와 클로스 아팔타 2014(Clos Apalta 2014)다. 둘 다 완벽한 와인이다.

In just year 2017, Me and my team of top tasting editors tasted close to 17,000 wines. After visiting every major winegrowing country, we decided that these are the top 10 wines of 2017.

JamesSuckling.com tasters including myself, Stuart Pigott, Nick Stock and 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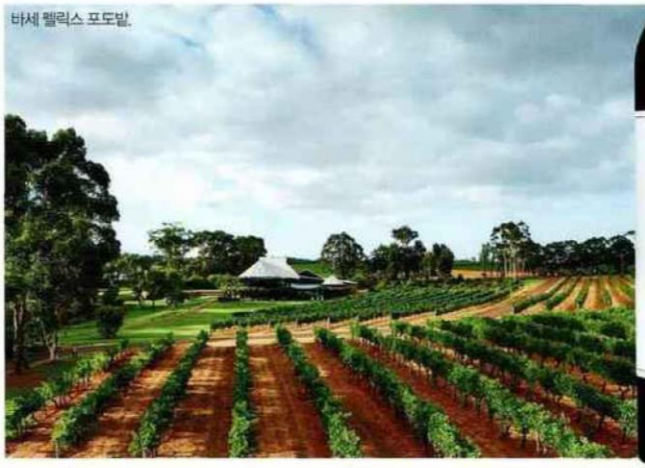
son Jack tasted wines in just about every major winegrowing country, and most of the tasting was in the given region of production. This gave us an insight into more than the liquid in the bottle. It provided us with an understanding and feel of this year's releases whether from Tuscany, the Barossa Valley, Rioja, Napa Valley, the Mosel, the Wachau and dozens of other places. We talked to winemakers, walked the vineyards and smelled the land.

It wasn't done for the frequent flyer miles! We traveled like that in 2017 because we are all curious at JamesSuckling.com what the best wines out there are at the moment we want to taste and report about them. We love wine, and that's the bottom line.

After 36 years as a wine critic, this was one of the most exciting. We tasted so many amazing wines and had so many wonderful experiences. And we shared it all as a team, a family and for readers, meaning you. It makes it all the more difficult to create a list of the 10 best wines in 2017.

세냐 2015.

But we decided on one wine in the end: the 100-point Almaviva Puente Alto 2015 from Chile. This is a wine that epitomizes greatness with its intensity, structure and balance. It underlines the movement away from overdone, jammy wines to a neoclassicism with energy and finesse. It also highlights how South America, specifically Chile, has come into its own as a wine area, producing superb wines that can compete with the best in the world. The other two Chilean wines in our top 10 are Seña Valle de Aconcagua 2015 and Clos Apalta Apalta 2014. They are both perfect wines.


바세 펠릭스 포도밭.

1 Almaviva Puente Alto 2015
국가 칠레 **지역** 마이포밸리 **빈티지** 2015 **점수** 100
담배 향과 블랙베리 향이 절묘하게 어우러지고 돌과 꽃 향이 묻어나며 씁쓸한 초콜릿 향도 느낄 수 있다. 매우 치밀하게 잘 짜인 풀 보디 와인으로 잔향이 오래 남는 구조가 긴장감을 준다. 허끝에 느껴지는 카엔 고추와 다른 향신료의 풍미 또한 개성 넘친다. 병입 후 4~5년간 숙성이 필요하지만 지금 마시기에도 좋다.

2 Petrolo Valdarno di Sopra Galatrona 2015
국가 이탈리아 **지역** 토스카나
빈티지 2015 **점수** 99
바이올렛, 장미, 라즈베리의 탁월한 향과 함께 딸기, 브라운 슈거 향도 풍긴다. 풀 보디 와인. 겹겹이 펼쳐지는 과일 향과 벨벳처럼 부드러운 타닌의 세련된 조화. 이것이야말로 모두가 기다려온 갈라트로나 와인이다. 깊이와 힘을 지녔으면서도 섬세하고, 정교함과 응집력을 보여주는 빈티지다. 역대 최고. 2023년부터 마시면 좋겠지만 이미 기막힌 수준.

갈라트로나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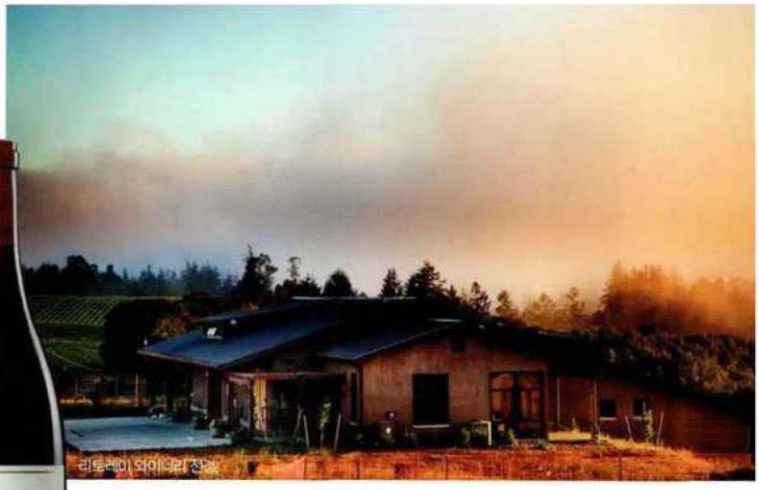
3 Seña Valle de Aconcagua 2015
국가 칠레 **지역** 아콩카과 **빈티지** 2015 **점수** 100
블랙커런트, 돌, 블루베리, 감초의 아찔한 향을 풍긴다. 요오드와 꽃향기, 향수의 느낌도 감지된다. 환상적인 과일의 밀도와 제대로 농익은 타닌을 경험할 수 있는 풀 보디 와인. 강한 에너지와 집중도를 갖춘 와인으로 잔향이 수분간 지속된다. 피니시의 씹는 듯한 질감도 인상적. 넉넉함과 견고함을 겸비한 완벽한 와인이다. 2021년에 마시면 좋을 듯하지만 이미 고전적인 품격을 지녔다.

4 Vasse Felix Cabernet Sauvignon Margaret River Tom Cullity 2013
국가 호주 **지역** 서호주 **빈티지** 2013 **점수** 99
참으로 우아한 와인이라는 점이 이곳에 와 느낀 첫 감상이다. 코끝을 스치는 자갈 향과 미묘한 잎 향의 조화(현지에서 교과서처럼 쓰이는 표현이다). 강렬하고 생생한 레드커런트와 보이즌베리, 레드체리의 풍미가 카시스, 서양자두, 오디와 어우러진 유혹적인 와인이다. 바이올렛 같은 신선한 꽃향기와 함께 갓 따낸 허브 향 또한 포도원 특유의 개성을 잘 드러내는 싱그럽고 향긋한 오크 향과 조화를 이룬다. 위대한 와인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지녔으며, 마거릿 리버 지역 바세 펠릭스 와인과 호주산 카베르네 품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와인이다. 2020년 이후에 마시면 좋다.

바세 펠릭스 카베르네 소비뇽.

클로스 아팔타 2014.

리토레이 피노 누아 더 해븐 빈야드 2015.



리토레이 와이너리 전경

5 Clos Apalta Valle de Colchagua 2014

국가 칠레 **지역** 콜차과 **빈티지** 2014 **점수** 100

블랙베리, 블루베리, 꽃과 뜨거운 돌 향이 어우러진 강렬하고 인상적인 와인. 응집력 있는 풀 보디 와인으로 아주 미세한 타닌을 자랑하며 잔향이 오래 남는다. 집중도가 높고 촘촘한 짜임새와 신중함도 돋보인다. 이 브랜드 역사상 가장 세련되고 아름다운 와인의 진수. 지금 당장 마셔도 좋지만 2020년엔 더 훌륭해질 것이다. 카르메네르, 카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품종 혼합.

6 Catena Zapata Chardonnay Mendoza Adrianna Vineyard White Stones 2014

국가 아르헨티나 **지역** 멘도사 **빈티지** 2014 **점수** 99

아르헨티나도 세계 굴지의 최고급 화이트 와인과 비교해 경쟁력 있음을 입증하는 빼어난 와인이다. 돌, 라임, 레몬, 머랭, 꽃 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다. 파이 크러스트 향기도 살짝 풍긴다. 풀 보디 와인으로 미네랄 풍미와 함께 짜릿한 산도가 희열을 선사한다. 지금 마시기에도, 보존하기에도 좋다. 유기농 포도로 만들었다.

7 F.X. Pichler Riesling Wachau Ried Kellerberg Smaragd 2016

국가 오스트리아 **지역** 다뉴브 **빈티지** 2016 **점수** 100

대단히 가벼운 느낌을 유지하면서도 놀랍도록 응축된 드라이한 리슬링 와인이다. 파슬리부터 레몬그라스, 잘 익은 백도, 밀감, 화이트 초콜릿에 이르기까지 엄청 폭넓은 향의 스펙트럼을 자랑한다. 이 모든 향보다 중요한 것은 놀라울 정도로 긴 잔향으로 표출되는 빼어난 균형미다. 향후 30년간 언제든 마셔도 좋다!

8 Littorai Pinot Noir Sonoma County Sonoma Valley Sonoma Coast The Haven Vineyard 2015

국가 미국 **지역** 캘리포니아 **빈티지** 2015 **점수** 99

중국 향신료와 콩, 자색 과일 향이 조화를 이룬다. 짙은 버섯 향도 느낄 수 있다. 빼어난 깊이와 강렬함이 돋보이는 풀 보디 와인. 톡 쏘는 듯한 끝 맛과 돌, 미네랄, 향신료 향, 존재감이 대단하다. 2020년엔 더 훌륭해지겠지만 지금 마셔도 근사하다.

9 Fattoria Le Pupille Maremma Toscana Saffredi 2015

국가 이탈리아 **지역** 토스카나 **빈티지** 2015 **점수** 99

이 와인의 커런트와 로즈메리 향이 특히 마음에 든다. 세이지 향도 나는데 마음을 사로잡는 복합적 향기가 인상적이다. 대단히 짜임새가 촘촘하고, 씹힐 듯 길고 강렬한 끝 맛을 지닌 풀 보디 와인이다. 너무도 세련된 타닌은 가히 '환상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 집중도가 높은 훌륭한 와인. 희미한 재 향이 깃든 미네랄 풍미와 진한 자색 과일 맛과 함께 뜨거운 돌 향기가 어우러진다. 잔향이 몇 분간 지속된다. 조화로움을 갖추려면 3~4년이 더 필요하다.

10 Chateau Ducru-Beaucaillou St.-Julien 2014

국가 프랑스 **지역** 보르도 **빈티지** 2014 **점수** 99

향신료 향은 말할 필요도 없고, 블랙베리와 블랙커런트 같은 으깬 베리류 과일 향이 가득하다. 젖은 흙과 삼나무 향도 풍긴다. 날렵하면서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풀 보디 와인이다. 혀 중앙에서 느껴지는 밀도와 대단히 부드러운 타닌이 인상적이며, 모든 것이 적절히 균형을 이룬다. 시음할 때도 훌륭했지만 2022년엔 더욱 맛있어질 것이다. ◇

카테나 사파타 샤르도네 2014.

사프레디 2015.

F.X. 피흘러 리슬링 2016.